

알-하사 장인 마켓의 장인의 집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매우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고대 아랍 문화가 있다. 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번성하는 산업들과 예술 장소들이 많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독자적인 예술 형태를 만들어내고 관광 활동에도 활용되어진다. 특히 동부 지역은 알-아사가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의 국제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는 덕분에 매년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을 유치한다.

다양한 수공예 사업들과 제품들은 단순한 도구들과 원자재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자원들,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온 선천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의 최상의 원자재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산업과 수공예품에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선조들의 진정한 유산으로 여겨진다. 공동체는 공예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기원, 사회적 유산을 유지할 수 있다. 고대 역사와 풍부한 야자수가 특징인 알-아사의 매력적인 자연환경은 그들의 직업을 위한 수단들을 제공해 준다.





알-아사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제조와 장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배우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와 걸프 만 주변에서 학생들이 알-아사로 이주해왔다.

알-아사 가족들은 이제 전 세계에까지 알려진 비시트(Bisht)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므로 사우디 정부가 학문적이든 전문적이든, 취미이든 문화적이든간에 수공예 분야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한편 전통유산과 관련하여 이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의 최근 행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알-아사의 장인 시장에 위치한 장인의 집(The House of Craftsmen) 프로젝트는 수공예 분야에서 재능 있는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주요 대상은 공예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자선 활동가, 사회적 지원을 받는 취약자, 그리고 고아들이다.

알-아사 장인 시장은 역사적인 호푸프(Hofuf) 지구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으며, 면적 1만2000m²에 98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 시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도시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 및 공예의 보존을 향한 알-아사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게다가, 거기에는 숙련된 장인들이 그들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사립



아카데미도 있다.

장인의 집 프로젝트는 도자기, 목공예, 석고, 니트의류 등 다양한 8개월 과정의 강좌들을 제공한다.

그 결과, 알-아사 주의 장인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장인의 집의 발전, 제품들을 선보이는 소매점 오픈, 다양한 관련 행사나 활동의 개시, 제품의 향상 및 홍보 등을 비롯하여 기대 이상의 많은 성과와 진전을 이루었다.



프로젝트의 모든 참가자는 21세에서 45세 사이여야 하며, 전일제(하루 8시간의 훈련과 업무)로 프로그램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재정적 보상, 사회 보험, 디자인 분야의 교육 워크숍 접근 기회, 프로젝트 디자이너로부터 제공받는 고품질 디자인 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의 교육자들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Al Saud)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비전 2030"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사우디 왕국의 문화적 탁월성을 확립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고 왕국의 역사, 유산, 고대 유물 및 문화 발전을 보존하는 진정한 문화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알-하사 창의도시 팀